

다이와보 - 희귀 천연섬유로 신소재제품 개발

다이와보는 각종 희귀 천연섬유를 활용한 에콜러지(ecology, 생태환경유지학)소재를 연달아 상품화하고 있다.

면하고 비슷하면서도 촉감이나 평활성(平滑性)이 견과 비슷하여 실크코튼(silk cotton)섬유라고도 하며, 의류용으로는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케이폭(kapok)섬유를 면과 혼방한 소재 “카푸크”로 제조된 보텀(bottom, 하의류)이나 아우터(outer wear, 겉옷)제품이 2003년 말부터 판매되고 있으며, 면과 인피섬유(靱皮纖維)로서 이것 또한 의류용으로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케나프(kenaf, 洋麻)를 혼방한 소재로 제조된 니트 아우터 T-셔츠는 2004년 봄철부터 판매되고 있다. 원료가 워낙 진귀(珍貴)하여 확보가 어려운데, 이들 원료가 의류로 제조되는 소재는 특수고객의 주문만을 받아 생산하고 있다.

“카푸크”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케이폭”의 종자섬유를 20~30% 혼방한 10~40수 단사로서, 그 중에서도 10수 단사로 제직된 직물을 중심으로 보텀이나 아우터용으로 특수고객에게만 공급되고 있다. 섬유의 단면은 중공도(中空度)가 70~80%로 매우 커서, 물위에 뜰 정도로 구멍대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겨울철에도 옷이 가벼우면서도 많은 공기를 품고 있어 보온성, 흡습성도 우수하다. 생산량은 월에 약 10곤(梱)정도이다.

면·케나프 혼방 소재는 “타이케나프”라고도 하는 “로젤(rozelle)”의 인피섬유로서 견과 비슷한 광택이 있고 매끄러우므로 방적이 가능한 솜으로 가공하여 면과 30% 정도를 혼방한 20수 단사가 주로 방적되고 있으며, 월생산량은 20곤 정도이다.

케나프는 성장이 아주 빠르는데, 성장하면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으로 흡수하고 산소를 뿜어낸다. 케나프 한 줄기는 한 사람이 1~2일에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하루에 흡수한다고 하여 환경의 정화에 매우 유익한 원료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헴프(hemp, 대마)로 방직한 소재 “헴플(Hemple)”은 내추럴한 태와 반듯한 느낌에 드라이한 느낌이 특징이며, 20수를 중심으로 보텀용 실을 주문받아 생산하고 있다. ♣